



미 증시, 고용 지표 경계심리, 은행발 악재 등으로 급락

미국 증시 리뷰

9 일(목) 미국 증시는 지난 7~8 일 파월의장 매패 연설을 소화하면서 장 초반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, 이후 10 일 고용지표 경계심리 속 SVB 파이낸셜(-60.4%)의 대규모 유상증자, 실버게이트(-42.2%)의 자발적 청산 사태로 인해 금융업종(-4.1%)을 중심으로 악재 압력이 심화되며 급락(다우 -1.7%, S&P500 -1.9%, 나스닥 -2.0%).

핀테크 은행 SVB 파이낸셜은 1 분기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(18 억달러 추정)을 상쇄하고자 약 20 억달러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60%대 폭락.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산업 및 규제 발전에 맞춰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자발적인 청산을 밝힘에 따라 주가는 40%대 폭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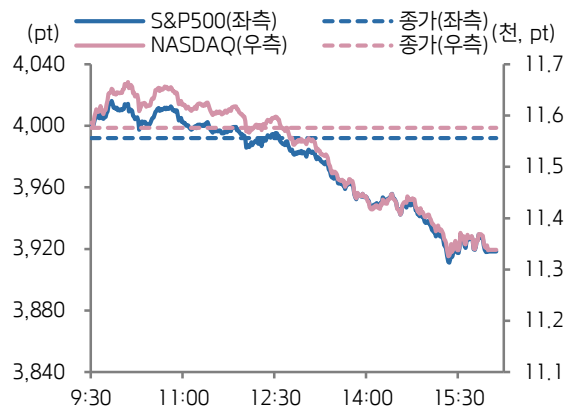
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.1만건으로 전주(19.0만건) 및 예상치(19.5만건)를 상회했으며,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171.8만건으로 전주(164.9만건) 및 예상치(165.9만건)를 모두 상회.

바이든 정부는 약 6.9 조원대의 2024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. 연 40 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 39.6%(기존 37%)로 상향, 법인세 28%(기존 21%)로 상향, 국방예산안 3.2%(YoY, 약 8,400 억달러) 증가 등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나, 증세와 관련해 야당인 공화당에서 반대 의사가 많음에 따라 금번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.

중국의 2 월 생산자물가는 -1.4%(YoY)로 전월(-0.8%) 및 예상치(-1.3%)를 모두 하회. 2 월 소비자물가도 1.0%로 전월(2.1%) 및 예상치(1.9%)를 모두 하회하는 등 리오프닝 기조에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제주체들의 수요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. 중국 국가통계국 측은 춘절 이후 둔화된 수요와 늘어난 공급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물가 지표 부진의 배경이라고 설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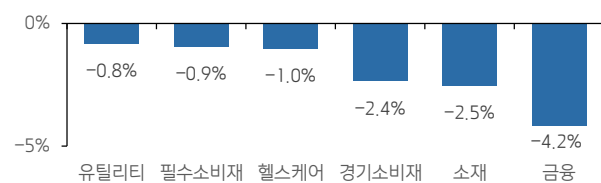
캐나다 중앙은행(BOC)는 기준금리를 기존 4.5%로 동결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금번 금리인상 사이클을 중지. BOC 측은 긴축 정책이 가계 지출, 기업 투자를 약화시키고 있으며, 최근의 데이터들은 2023 년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3%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는 점이 금리 동결 배경이라고 밝힘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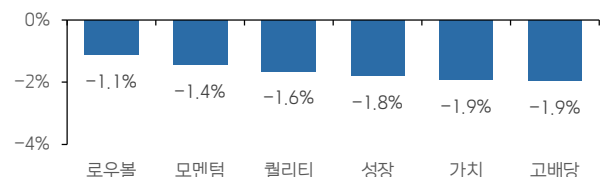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19.09	-0.53%	USD/KRW	1,322.25	+0.07%
코스피 200	314.04	-0.42%	달러 지수	105.24	-0.39%
코스닥	809.22	-0.58%	EUR/USD	1.06	-0.01%
코스닥 150	1,182.41	-0.49%	USD/CNH	6.98	+0.01%
S&P500	3,918.32	-1.85%	USD/JPY	136.12	-0.02%
NASDAQ	11,338.35	-2.05%	채권시장		
다우	32,254.86	-1.66%	국고채 3년	3.836	-1.4bp
VIX	22.61	+18.32%	국고채 10년	3.720	+0.8bp
러셀 2000	1,826.59	-2.81%	미국 국채 2년	4.870	-20bp
필라. 반도체	2,980.21	-2.01%	미국 국채 10년	3.903	-8.8bp
다우 운송	14,569.17	-2%	미국 국채 30년	3.849	-4.5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86.12	-0.05%	WTI	75.63	-1.34%
MSCI 전세계 지수	632.23	-0.1%	브렌트유	81.55	-1.34%
MSCI DM 지수	2,725.23	+0.02%	금	1835	+0.9%
MSCI EM 지수	978.07	-1.04%	은	20.03	+0.1%
MSCI 한국 ETF	57.74	-2.45%	구리	403.35	-0.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, 1일 종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2.45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2.21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60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23.4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미국 지방은행 시스템 리스크 우려 및 금융주 급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2.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로 따른 중국 경기회복 관련주들의 주가 차별화 3. 2차전지 및 엔터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 확대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1.1 만건(예상 19.5 만건, 전주 16.4 만건)로 10 주만에 최고치를 기록. 2 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남. 이에 3 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 소폭 하락, 금리하락,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.

그러나 지수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1) 실버게이트 영업중단 및 SVB 은행의 건전성 문제 대두, 2)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안 발표. 미국 가상화폐 거래 은행 실버게이트(-40.2%)는 은행부문의 영업을 청산하겠다고 발표, 작년 11 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이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. 이에 주가가 40% 가량 급락하고 가상화폐 시장 역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위험 선호심리 위축이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.

또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인 SVB 파인낸셜(-60.4%)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사주 17.5 억 달러를 매각하여 자금조달을 하겠다고 발표. SVB 의 경우 지방 IT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고객층으로 두고 있다는 점, 연준의 금리 인상과 채권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 등이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상황으로, JP 모건체이스(-5.41%), 뱅크오브아메리카(-6.20%), 웰스파고(-6.18%) 등 초대형 은행주들 역시 급락.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지며 심리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당장 3 월 FOMC 금리인상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 월 고용보고서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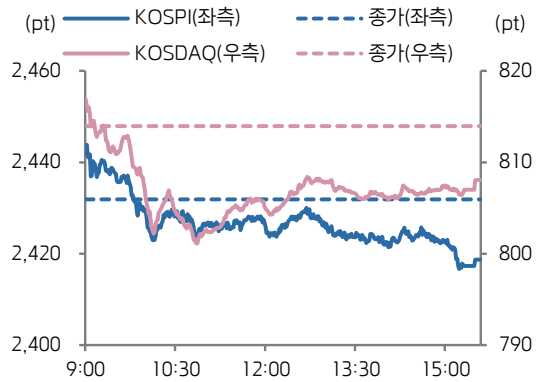
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21% → 28% 인상,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등 증세안이 포함된 6.9 조 달러 규모의 2024 년 예산안을 발표. 예산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증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통과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매우 낮지만, 기업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1 분기 기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9 일(목) 국내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반등한 미 증시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, 선물옵션동시 만기일 리밸런싱, 이차전지 및 엔터 업종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상승폭 축소하며 하락 전환 마감 (KOSPI -0.53%, KOSDAQ -0.58%)

금일에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경계심리와 시스템리스크 우려 유입되며 하방압력 받는 가운데 경기 방어 업종이 상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. 한편, 장중에 발표된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YoY 1.0%(예상 1.9%, 전월 2.1%), 생산자물가지수는 YoY -1.4%(예상 -1.3%, 전월 -0.8%) 기록. 중국 국가통계국은 CPI 부진에 대해 따뜻한 날씨로 인해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여 식품 물가가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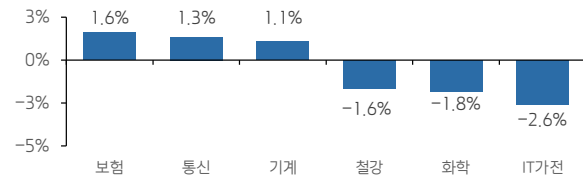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지난 5 일 양회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% 내외였으며, 근원 CPI 가 YOY 0.6%로 1 월 1.0% 대비 부진한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었음. 중국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실망감으로 철강, 화학 업종은 약세를 보인 반면 항공, 레저, 화장품 등 소비관련주는 강세를 보이며 차별화.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15 일에 발표될 1~2 월 누적 소매판매, 산업생산, 고정투자 지표 확인 이후 양회 모멘텀은 악화될 가능성 존재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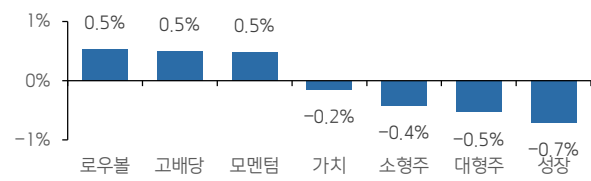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